

美國의 圖書館學大學院課程과 外國人 學生

닐 할로 著
鄭泰淑 譯

다음 글은

George S. Bonn, ed.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1967. pp45—50에 실린

Neal Harlow, "U.S. Library Schools and the Foreign Librarian"을 번역한 글이다. 發行年度가 좀 오래된 글이긴 하나, 美國의 現 도서관 및 도서관학과의 상황에 그대로 타당한 글이라고 생각되어 우리말로 옮겨 보았다.

한국에서 大學을 마치고 美國에 가 圖書館學을 研究하고자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譯者註).

美國內 大學院의 도서관학과의 目的은 도서관 봉사 활동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分明해진다. 美國內에는 他國의 경우와 비교하여 不實 도서관도 많고 同時에 훌륭한 도서관들도 많이 있다. 教育水準이 낮고 저소득층의 그룹에 봉사하는 도서관에서부터, 教育水準이 아주 높고, 부유한 地域社會에 봉사하는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도서관의 水準도, 관리가 역량이고 형편없는 것에서 부터, 훌륭한 자료와 有能한 직원들, 좋은 프로그램, 技法, 설비를 갖추고 있는 世界에서 으뜸가는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직원도 여러층임에 틀림없다. 美國內에서 司書의 정규교육은 1887년에 始作되었으며, 당시 도서관 자료 및 상황은 비교적 低水準에 있었다. 최초의 도서관학과의 目的을 창건자 멜빌 듀이의 말대로 이미 存在하는 직종에 대하여 여기에 증사할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었다. 당시 그는 그가 설치한 課程은 순전히 技術的인 과정으로 短期 프로그램이었으며, 도서관에 취직이 되어 배울수 있는 것을 보다 빨리, 능률적으로 가르치는 一種의, 체계적인 경험의 代用이었다. 그는 도서관 內에서의 세분화한 일을 해 낼수 있는 훌륭한 기술자를 배출하고자 했고, 결코 이 分野의 지도자를 배출할 意圖는 없었다. 그는 그 당시, 그곳의 여건

下에서, 도서관을 發達시키는 길은 바로 實際的인 面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80년이 재빨리 흘러 時代는 變하였다. 조그만 시골은 도시화되고, 자연과학 기술이 發達하고, 學校는 팽창하고, 知識의 증가, 출판물의 범람, 人口증가와 더불어 여러 여건에 있어, 知識과 정보는 必需化 되었다. 1887年 당시의 도서관의 상태로는 不足하다. 따라서 새로운 방향이 試圖되었다. 도서관의 개념과는 無關하게, 각종의 교육 배경과 경험을 지닌 정보관 및 文書官(documentalist)들이 일하는 "정보센터"가 생겼다. 大學內의 연구 도서관이 급속히 발달되고, 산업 및 기업체 內의 특수 도서관의 發達 및 圖書館 關係 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圖書館 奉仕活動을 장려하였고, 공공 및 學校도서관의 증가를 보았으며, 연방정부는 직접 보조금을 주고, 研究의 장려 및 도서관학 연구확장을 위한 자금을 대는 등 도서관 지원을 해 왔다.

圖書館 봉사 및 정보활동을 위한 教育계획에도 變化가 와야 하는 것은 당연했다.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이라는 課程이 도서관학 大學院과정과는 別個로 始作되어, 工學, 自然科學, 數學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미 있는 學科의 이름에 정보학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정보쪽을 強調하는 새로운 과목과 課程과 함께 새로운 학위가 설정되었다. 많은 學校가 이와 같은 변천의 방향으로 움직여, 學科課程에 "관리" 및 "조직"이라는 것을 넣고, 기계가 해내는 일과 人間이 해내는 일의 한계를 再조정하게 되었다. 또한 뒤따르는 社會變化를 깨닫고——都市化, 教育, 政府, 人口의 移動(自發的 移動); 정치학, 경제학, 社會學, 心理學, 行政學 分野의 最近의 발전——여기에 맞게 적절히 計劃을 세우고, 教育課程의 變化를 단행했다.

멜빌 듀이의 사서의 개념은 빨리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낡은 개념임에는 틀림없다. 司書는 이제 새로운 必需日用品인 知識을 다루며, 이를 社會에 쉽게 제공하는 일을 맡는다. 어떤 意味로는 司書의 일은 제한되

었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意味로는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司書는 대개의 기계적인 일을 벗어나서 오랫동안 의뢰 해 오던 많은 업무를 도서관 기술자(library technician)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일상 해 오던, 분류 및 목록, 書誌確認, 일반 사무처리 및 유지 활동을 말함). 司書가 말한 “匠人”은 이제 도서관에서 더욱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 전문적인 책임이란 주로, 도서관 경영 및 관리와 독자에게 직접 전문적인 봉사를 하는 것(즉 개개인에게 知識을 제공하고 조직하며, 評價하는 일)을 뜻한다. 司書職은 말은바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특수 세분화에 구애 없이) 知的인 성격을 띄게 되고, 판단과 결정을 내리며, 전문적으로서, 전문적 水準에, 또한 지역사회 市民들에게 응하게 되었다. 司書는 이제 主로 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個個人的 정보 및 文化的 要求에 답하며, 司書들이 자신의 참다운 직무가 무엇인가를 理解하는 것은 重要하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美國內 도서관학과 的 發達過程이다. 도서관학과는 다른 學科나 마찬가지로, 우선 地域社會 條件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며, 아무리 그 內容이 포괄적이라 해도, 他國의 必要性에 그대로 응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美國 內에서만도, 各大學院의 水準이 다르고, 그들의 強點이 다르며, 대개 變遷하는 社會要求에 따르고 있어, 學科과정, 教育水準, 內容, 學業水準, 入學요강이 다 다르다. 어느 特定한 나라 學生들을 教育하기에, 이 學校가 저 學校보다 나올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特性을 다 對표화하기는 힘들다.

本人은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므로, 여러 教育기관의 도서관학 大學課程에 대해서는 論하지 않겠는데, 이들은 高等教育 기관 以下의 기관에서의 도서관 문제를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다. 美國에서 진정한 전문적인 도서관 봉사를 하기 위해서 大學의 도서관학과 卒業정도로는 高度 水準의 知識을 충분히 다룰 수가 없다.

大學院에 入學하기 위해서는 大學을 “A”나 “B”의 성적으로 졸업해야 한다. 대개의 學校는 지원자가 소위 교양교육, 즉, 학사학위를 받는데, 기초가 되는 人間科學, 社會科學, 自然科學을 공부하며 한가지 전공이 있어야 한다. 大概의 학교는 三年은 착실히 기초과목을 배우고, 一年남짓, 전문과목을 마치기를 要한다(즉 대학과정이 법률, 경영, 도서관학 및 기타 전문분야에 너무 치중했다면, 기본과목을 다 보충을 하지 않고는 入國시킬 수가 없다). 실제 성적표를 조사해 봄으로서 자력심사가 가능한데, 擇한 과목, 과목의 水準, 內容, 學生의 취득학점을 본다. 또한 적어도, 自國語 以外에 外國語를 하나 해야하며, 보통 英語면 足하다.

美國의 모든 學校는 英語로 강의를 한다(한 學校만이 특수자료에 의해 운영되는 계획에서, 第二外國語인 서반어도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美國 학생과 비교하여 손색 없이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能力이 自由로와야 하며, 英語實力이 없이는 큰 弱點이 된다. 따라서 入學許可를 내기 前에 반드시 영어시험을 보여야 하며, 대개의 學校는 학기 시작전이나, 初期에 英語 단기교육을 시키고 있다.

대학원 과정이란 과목을 여러개 뭉쳐 놓은 것이 아니고, 連貫성 있는 內容을 종합한 것이므로, 大學에서 처음, 여러 學校에서 공부한 학점을 한데 모아서 인정해 줄 수 없다. 內容은 아주 빨리 變하며(또한 그대야만 하는 것이지만) 全國을 通하여 표준화된 도서관학과 내용이란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어서, 한 學校에서 다른 學校로의 학점의 이전은 매우 제한된 범위 內에서만 받아들인다.

大學院 공부는 직업교육이 아니며, 특정한 직업을 위한 훈련과정이 아니다. 이는 이론과 原理와 개념을 研究하며, 개개 학생들은 자기의 知識을 독자적으로 理解하고, 使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지 날날히 암기하여, 要求하면, 반복해 내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언젠가는 책임있는 자리에서 지도자의 임무를 떠맡고, 독자적인 能力을 발달할 수 있고, 자기의 학식을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入學이 되면 학과의 과정을 “A”나 “B”의 성적으로 해 내야 한다. “C”정도의 성적으로는 학위를 받을 수가 없다. 대개 학업 실패의 이유로 영어실력이 부족한 點, 學力이 낮은 點,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 態度 및 독자적인 思考力의 不足을 들 수 있다.

外國人 學生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거의 없다. 몇 학교가 수업료 면제를 해 주고, 서너군데 學校에서 美國 학생들과 경쟁하여, 一般장학금을 얻게 하는 정도이다. 그 以外는 미국돈으로 얼마를 가지고, 스스로 교육비를 부담할 能力이 있다는 보증서를 제시해야 한다.(\$500에서부터 \$4,000까지 차이가 많음). 美國까지의 왕복 비행기 값을 주는 예는 정부기관이나 재단의 예를 빼고는 있지 않다(즉 홀부라이트 장학금과 등서문화센터 장학금, 두가지가 있음).

대개의 學校는 영어를 第2의국어로 하고 있는 나라 學生들에게 全 학점數를 하지 못하게 하며 따라서 학위를 끝내는데 2년이 걸린다. 全 학점數를 一年內에 끝나게 하는 학교는 드물다. 다섯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공부하면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직업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을 가지는 것은, 특히 공부를 시작한 처음 단계에서는 학업에 크게 지장이 된다.

처음 입학한 外國人 學生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고 있는가? 대개의 학교는 外國人 학생들을 美國 아이들과 똑같이 취급한다. 때로는 英語로 대학원 과정을 해낼 수 있는 能力을 인정받기까지는 임시자격의 학생으로 공부한다. 대체로 교과과정은 外國人 학생을 위해서 꾸며져 있지 않다. 서너개 곳에서 “외국의 사서직”(International Librarian Ship)이란 과목을 두어, 원하는 학생들이 擇하긴 하지만, 대개 학점 이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정규과목의 반을 따로 두기도 하지만, 대체로 인기가 없어 잘 되지 않는다. 半정도의 학교는 기존 과목을 外國人 학생의 특정 필요에 맞게 선정하거나, 연구 계획 및 숙제를 여러가지에서 擇할 수 있게 하고 自由로 의사를 발표하도록 장려한다. 대개의 學校는(한시간내지 두주일 間의)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reading list(읽어야 할 책의 리스트)를 미리 돌려 주고,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教授에게 外國인 학생들을 배당하거나, 英語를 도와 주고, 적절한 학습의 방법을 찾도록 한다. 대개는, 美國의 이민국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부를 끝내면 有給직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알선해 준다.

어떤 학교들은 학생들이 귀국한 뒤에도 계속 유대관계를 지니고, 몇몇 학교는 재단 및 정부의 지원을 받아 他國의 도서관 및 도서관학과 설치에 적극 참여한다. 美國 대학 도서관학과 출신들은 전세계 각처에서 도서관장이나 도서관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美國에 대학원 과정을 밟으러 오고 싶어 하는 學生들에게, 주고 싶은 충고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이 서는지, 그리고, 진지하게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 지이다. 잘못 생각하는데서, 불행이 초래된다. 성공의 비결은 우수한 學力, 大學에서 공부한 교과과정의 內容, 英語실력,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용의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신기해 보이는 새로운 교육 및

文化 여건에의 적응성, 그리고 재정적 보증이다. 大學院에 入學이 되었다고, 누구나 학위를 받는 것은 아니며, 大學院 과정에서 낙제를 하면 다시 始作할 기회란 주어지지 않으며 영원히 물러나야 한다.

外國人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서나 환영을 받는다. 그들은 교수 및 미국학생의 이해의 세계를 넓혀 주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 일할 작오가 되어 있고, 그곳에서 지도력을 發揮하고, 자기나라 특성에 맞게 새로운 개념을 살려볼 수 있는 충분한 상상력을 지닌 外國人 學生들을 특히 환영한다. 어느 학교도, 단지 美國에 入國시키기 위해서 비자를 발급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文化의 배경을 지닌 學生들은 교실에서의 討論에 흥미와 의미를 더해 주기는 하나, 한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의 數에는 제한이 있고, 그 數字를 넘어서면 교실 및 수업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다.

美國大學의 도서관학 대학원 과정이 他國의 도서관 발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길은 資源이 되는 要員을 배출하는 것이다. 즉 司書를 양성해 낼 수 있는 사람——자기나라의 도서관 및 도서관 학교를 조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美國의 학교는 반드시 귀국할 사람, 다른 美國 학생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해낼 수 있는 아주 有能한 사람만을 받아들여, 그들이 學校에서 배운것을 실제 써먹을 수 있도록 特別히 지도해 주며, 그들이 귀국을 한 뒤에도, 계속 연락을 취해야 한다. 外國학생들이 와서 배운것이 時에 모두 요긴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가 美國의 사서직 때문에 미국에 매력을 느꼈다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필수 있는대로, 美國의 사서직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美國사서직의 特性 및 그 가치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必要를 느낀다.

學術發表 및 4個大學親善排球大會 開催

—中大 圖書館學科 創立 10周年紀念—

中央大學校 文理大 圖書館學科에서는 學科創立 10周年을 紀念하기 위한 行事의 一環으로 學術發表 및 4個大學(中大, 延大, 梨大, 成大 等) 親善排球大會를 開催하였다고 한다. 지난 5月18日 同大學校 視聽覺教室에서 열린 學術發表會에서는 同大學校 任哲淳 總長의 開會辭에 이어 前 淑大總長 金斗鍾 博士의 “韓國書誌學的 研究方向”이란 講演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同講演主題에 의한 세미나를 가지고 “圖書館學的 研究方法와 執筆姿勢에 따른 “日帝時代의 圖書館學”(沈鳴俊

“解放以後의 圖書館學”(李春熙), “現代 圖書館學의 方向”(盧玉順) “圖書館學的 研究方法에 대하여”(李炳穆) “等의 主題發表와 아울러 熱띤 討論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4個大學의 男女別 對陣 排球競技에서는 成大(男子部), 梨大(女子部)가 各 優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6月初旬에는 10周年紀念論文集이 出刊될 豫定이라고 한다.

石貞吉 前 大邱市立圖書館長 慶山女中高校長에 就任

前 大邱市立圖書館長 石貞吉 先生이 지난 5月 14日 付로 學校法人 八星學園의 慶山女子中高等學校長에 就任하였다고 한다.

石校長은 1964年9月 어려운 時期에 同市立圖書館長에 就任하여 다음해 11月까지 1年3個月간 많은 活動을 하여 多大한 貢獻을 하였다고 한다. (慶北地區協議會提供)